

아담 스미스(Adam Smith) 정치경제학의 현대적 재조명(再照明)*

양 재 선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회계학부 경제학과

Received 09 March 2018; Revised 11 July 2018; Accepted 23 July 2018

요 약

아담스미스는 사상의 기본 체계는 자연법에 입각하여 물리적 법칙과 도덕 법칙이 서로 합일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법에 복종하는 길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고 그는 보았다. 또한 그의 사상 체계는 이신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자연법 철학과 사리추구의 산술적 총화가 공익으로 연결된다는 공리주의 사상이며 경제적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그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국부론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그의 도덕감정론과 법학강의에서 이 자유주의를 지탱해주는 박애주의와 정의의 질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스미스는 고전학과 경제학의 원조로서 그의 경제사상과 철학은 시장의 효율성과 우월한 개별적 경제인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의 많은 부분이 개별적 인간과 사회의 도덕성의 실현을 경제활동의 기본적 준수사항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미스가 냉혈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자라기보다는 온정적 그리고 상생적 공리주의자로서 면목들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스미스가 노동자 농민에 대한 우호적 태도나 적극적 정부정책론자로서의 모습들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이라 할 수 있겠다. 시장중시의 고전학과, 정부개입의 케인즈안 그리고 그 절충을 통하여 경제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왔던 세계경제는 이제 모두가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스미스의 경제 원리는 이와 같은 세계경제 위기적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를 갖게 한다. 경제학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자유주의와 보호주의간의 대립을 이해하고 현대의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는 과거의 경제철학자들의 사상을 돌이켜 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의 큰 실마리를 던져주는 경제 사상가로 우리는 스미스를 분석하게 된다.

핵심주제어 : 도덕감정론, 경제적 자유주의, 자연법 사상, 보이지 않는 손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과 아태경상저널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함
이 논문은 2016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II로 연구되었음 양재선(sundama@hanmail.net)

The Modern Reinterpretation of the Political Economy of Adam Smith*

Jaesun Yang

Department of Economics, Division of Economics and Account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09 March 2018; Revised 11 July 2018; Accepted 23 July 2018

ABSTRACT

The thought of Adam Smith had become the principle of the Classical Economics and the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basement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he basic frame of Adam Smith depends on the natural law and is the explanation of consistence between the physical law and the ethics. Adam Smith thought that people should be subject to this rule to get the happiness and practice the goodness. His thought is the natural law which rests on deism and It also is the utilitarianism that the sum of the personal interest intergrade into common good. His thought is also called the economic liberalism. His economic liberalism is well expressed in the Wealth of Nation. From his Moral Sentiment and Judicial Justice, He explain the principle of justice for the support of liberalism and philanthropism. Adam Smith's economic theory of liberalism reminds us that it should be examined again in the crisis of the world economy. For the understanding the conflict between liberalism and protectism in the history and finding the solution of the recent world economic problems, we need to make a effort to reexamine the thought of past economist. Among them, Adam Smith is thought as the best economist to give us the big clue. In addition, the study for the evaluation of Smith as an active policy maker that has been not known is the new area of analysis.

Keyword : Moral Sentiments, Economic Liberalism, Natural Law, Invisible Hand

* Corresponding Author: Jaesun Yang (sundama@hanmail.net)

All papers comply with the ethical code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and AJBC.

This paper was supported by Suncho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II in 2016

1. 서론

아담스미스는 그의 도덕감정론(1759, TMS-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이해력 있는 그리고 독특한 형태의 도덕 감정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정치적 주장에 대한 그의 견해들은 도덕감정론이나 국부론(1776, WN-Wealth of Nations)에서 추정되어질 수 있으며, 아담 스미스가 자신들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법학강의 노트(1762 - 1763, LJ-lectures on jurisprudence)에서도 정부 통치 질서에 대한 그의 사상을 보완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고 평가되어진다. 그의 저술들에서 흐르는 중심적 맥락들 중의 하나는 우선 일반인들이 가지는 판단력의 건전함에 대한 신뢰이다. 그는 철학자나 정책가들이 사람들의 판단력 보다 그들이 고안한 시스템을 더 우월하게 여기며, 이를 대안으로 세우려는 시도들에 반박하였다.

도덕감정론에서 그는 일반적 도덕 감정을 철학적 우위의 관점보다 우선적으로 여겼으며, 국부론의 중심적 논쟁에서도 정부 관료들이 일반인들의 경제적 결정 사항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점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그는 일상적 인간의 삶을 외부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거나 교정하려고 했기 보다는, 그 내부에서 그 자체의 필요한 도구로 설명하려 했다 할 수 있다. 그는 이론적 사상과 일반적 생각의 차이를 구별지으려 했으며, 이러한 그의 지적 활동은 일반인들이 그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자연적 자유를 보증하게 하려는 데 있었고 이는 그의 정치적 관심사와도 관련되어져 있다.

오늘날 스미스에 대한 평가는 자유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이기심이 어떻게 경제적 부로 인도되어지는가에 대한 그의 설명에 달려 있다. 스미스를 가혹한 개인주의자로 평가절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첫 번째 주요 저술 작품이 윤리와 자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놀라움이 될 수도 있다. 스미스의 저술들은 경제과학에 대한 질문과 함께 국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침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고 있다. 스미스는 경제발전이 보편적인 자연법에 일치하는 자유경쟁의 환경에서 가장 잘 육성되어진다고 믿었다. 스미스는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에 대해 가장 체계적이고 이해력 있는 연구를 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경제적 사고는 고전학과 경제학의 기본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경제학자들보다도 그의 많은 사상들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고 지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미스를 경제과학의 알파요 오메가로 표현하기도 한다.

스미스의 경제사상의 기본 특징은 먼저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확신을 들 수 있다. 이는 중농주의의 자연법사상과 중상주의에 반대하던 그 시대 영국 사업가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산업혁명 직전의 영국 경제사회의 낙관적 미래관에서 도출되었으며, 그는 이기주의와 자애심을 인간행위의 원동력이라 분석함으로써 그 총합을 국가의 이익으로 연결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회개혁의 의지도 박애주의와 점진적 개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의 자유주의적 그리고 미래지향

적 또한 박애주의적 성향은 세계주의와 자유무역 사상으로 연결되었다.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가 자유경쟁과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국민적 관심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개인과 인류만 중요시 하였던 것이 아니고 국민적 발전과 세계적 발전을 아울러 가능케 한다는 확신을 주장한 학자였다는 측면이 더욱 우세하다. 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는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에서 또 다시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를 갖게 한다. 근대 이후 경제학의 사조는 크게 자유주의와 보호주의의 대립 그리고 그것들의 정반합적인 전개라고도 표현되어지는바, 그 논의의 중심에는 여전히 아담스미스의 주장이 해결을 위한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담스미스에 대한 전통적 견해와 함께 현대에 들어서 그에게 새롭게 제기되는 분석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그리고 그의 법학강의 등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저술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자유주의적 시장자본주의, 도덕성과 정의에 기초한 사회법적 제도와의 시장의 효율성간의 조화, 개인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의 균형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과 함께 거기에서 시사되어지는 아담스미스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 국부론에서 주장된 스미스의 시장자본주의

2.1 국부론의 주요 내용

스미스의 국부론은 그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윤리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기심의 범위를 도덕감정론의 동감의 논리로 제한하여, 타인의 불행을 초래하거나 행복을 저해하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라 보고 있다. 흔히 일반적으로 스미스는 신흥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 국부론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노동자와 농민의 입장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이 거기에서 다수 발견되어진다. 고용주들은 노동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단결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이윤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은폐하면서도, 고임금의 나쁜 결과만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스미스는 지적하고 있다. 상인들 역시 가격 인상을 위한 획책을 도모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 제한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러한 모임을 규제할 방도가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스미스는 농민이나 소비자에게는 우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주들도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독점정신이 적은 사람들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는 소비 역시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며 목적이라 보았고, 이는 중상주의자들이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하며 생산자의 이익을 추구한 점과 비교되어진다¹⁾.

1) Smith(1937), *Wealth of Nations*, ed., by Edwin Cannan, Modern Library, 65-70.

스미스는 모든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사용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정부와 국민을 부강하게 하면서도 개인을 부유하게 만들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경제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낙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의 법칙이 지켜져야,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자연히 조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국부론은 자연적 자유의 체계인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보이는 손인 국가와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역할과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의의 법과 원칙이 국가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시장의 질서 속에 국부증대와 공평한 소득이 가능하게 됨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에는 기존체제에 대한 전복의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중상주의 체제 속에 거대한 상인과 대자본가들은 독점과 배타적 특권을 누렸고 이는 당시의 부패한 절대권력 비호 아래서 가능한 것이었다. 국부론에서 아담스미스가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중상주의적 기존 틀은 해체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였고 따라서 정부에게는 과거의 생산양식과 관습의 틀을 걷어내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무역체제를 세워나가야 할 역할이 요구되어졌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무역체제는 정의로운 법과 통치가 시행되는 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제도의 틀 속에서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효율성이 지속적 향상이 이루어질 때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경제성장은 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노동과 자유기업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²⁾.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아담스미스 또는 국부론을 연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유방임주의는 자연적 질서의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하였다. 중농주의 역시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스미스의 중상주의적 통제와 독점에 대한 비판은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 구성원 각자가 정의의 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자유롭게 방임해야 함을 그는 설명하고 있다. 그의 소극적 정부의 이론 제창은 자연적 자유주의라 할 수 있으며, 그는 정부의 주요한 의무로 국방과 사법 그리고 공공토목사업의 유지를 들었다³⁾.

2) 장오현(2013/8), 국부론이 던지는 메시지, 제도와 경제 제7권 제2호, 한국제도경제학회, 5-12. 참조.

3)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은 중세적인 여러 가지 통제나 중상주의적 통제에 대한 비판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보다 핵심적인 측면은 자본의 자유에 대한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자본의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든 개인이 어떠한 자본에 대해서도 그에게 가장 유리한 용도를 찾아내려고 애쓸 때 그 사회에 가장 유리한 용도를 택하게 된다. 모든 개인은 필연적으로 그 사회의 연간 수입을 가능한 크게 하도록 노력하는 셈이 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자본을 국내산업의 종류나 생산물의 최대치를 만들고자 판단을 어느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잘 할 수 있다.” 스미스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핵심으로서 자본의 자유와 이윤추구의 주장을 강력히 나타내고 있다. 그는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인간의 해방과 자주독립을 의도하였다. 김영수(1982), 아담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일고찰, 경성대학논집, Vol. 10, 경북대학교 경성대학, 6-8.

아담스미스가 최초로 사용한 단어이자 그의 경제사상의 핵심을 나타내는 용어 중 하나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개별 인간 행위의 비의도적 결과로서 유익한 사회질서가 형성된다는 원리를 묘사한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개념의 표현들은 앞서의 학자들에게도 나타난다. 이는 17세기의 페티(Petty)와 로크(Locke)이며, 18세기의 맨더빌은<Fable of Bees. 1714>에서 이기심과 탐욕에 대한 충격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담 스미스는 맨더빌, 퍼거슨 및 흄과 같이, 사람이 이기심에 의해 동기화 된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는 이기심이 사회이론에서의 운동의 원리라 하였고 정부가 자유로이 사회를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교조주의라 일컬으며, 그들은 인간 본성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비판하였다⁴⁾.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은 세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유사 이래로 인간사회 그리고 학문에서 기타 영역에서 오류 가능성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는 첫째의 결과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질서를 가져온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제도와 관행을 인간의 의식적 계획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는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인간들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다⁵⁾.

국부론에 나타난 스미스의 주장에는 세계주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국부론 4권2장2절에서, 종래의 식민지에 대한 부등가 교환 또는 전쟁에 의한 약탈행위로부터 평화를 유지하는 국제적 분업을 통한 이들의 조화를 제창하였다. 스미스는 경제학의 두 가지 목적 중 그 하나는 국민에게 풍부한 수입 또는 생계의 자료를 공급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국가 또는 연방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수입을 공급하는 일이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다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 보았다⁶⁾.

아담스미스는 유럽의 중상주의, 그 중에서도 국가가 통제하고 간섭하는 보호 무역정책을 비판하였으며, 농업의 순 생산에 국부의 원천이 있음을 강조하는 중농주의는 크게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스미스 체계-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원리-를 기초로 하여 경제학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국부론은 인류 행복의 증진을 위한 사상 최대의 공헌을 남겼으며, 신약성서 이래 인류에게 최대의 영향을 끼친 서적이라 일컬어진다. 국부론은 또한 경제학의 완전한 집대성으로서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동시에 논리적이다. 그리고 이는 일반사회과학의 전분야를 포용함으로써 정치경제학의 체계를 최초로 갖추고 있으며, 경제학의 뿌리로 여

4) 박세일·민경국역 (1996)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Oxford, 1976, 참조. 6-8.

5) 황수익(1994),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반,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권 제3호, 참조

6) Smith(1937), 395-398.

겨지고 있다. 이처럼 국부론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단순한 경제이론서를 넘어 국부의 증대와 혁신적 경제체제의 틀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한 혁신적 복음서이자 지침서라 할 만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스미스의 경제사상은 이와 같이 국부론에 가장 잘 함축되어 있으며, 크게 자유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의 동인인 사적이익을 옹호하면서도, 정의로운 법 질서 하에서 이기심의 윤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스미스의 체계는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의 조화를 통하여 인간 경제사회의 윤리와 경제의 괴리 문제를 잘 조화시키고 있으며, 유물론적인 물질과 유심론적인 정신의 성격을 잘 분석하고 합치시킨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⁷⁾.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독일의 역사학과 경제학자들은, 스미스의 자유주의 원칙이 후진 독일에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이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스미스 체계는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을 맞으면서 현실에 적용될 수 없는 원리로 평가받았으며, 케인즈 혁명과 함께 주류 경제학에서 퇴장되는 듯하였고, 대신 1970년대까지 케인즈 경제학이 그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현상과 함께 케인즈적 정책도 무력함이 도출되면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합리적 기대가설이나 공급중시 경제학 등은 그 성격이 스미스 체계의 자유주의 경제로의 환원이라 주장되어질 수 있다⁸⁾.

2.2 자연적 질서속의 시장자본주의

스미스가 자본주의체제를 자연적 질서로 보는 견해는 근대 자연법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근대 자연법 사상은 중세적 전체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권리, 주관적 요구를 출발점으로 한다. 이는 인간 그대로의 자연적 성향과 본성 또는 의지의 논리적 귀결이다. 근대적 인간은 사적 소유권자인 개인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결정권과 사회의 공동규범을 조화시켜야 한다. 근대 자연법 사상은 생존, 자유, 재산과 같은 자연권을 가진 개인에게 근대 시민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질의와 응답이라 하겠다⁹⁾.

근대 자연법 사상은 개인의 소유권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공익의 관점에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사상은 로크나 홉스에게도 나타난다. 스미스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사회의 조화를 해치지 아니 하면 사회의 이익이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이기심의 추구가 사회 이익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확신은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에 의해서 주어진다¹⁰⁾¹¹⁾.

7) 김남일(2008), 아담 스미스의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국부론을 중심으로-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8) 김용재(2009), 아담 스미스의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국부론을 중심으로-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11.

9) 권기철, 김규(2002), 아담스미스의 자본주의론과 자본주의 정당화, 경제학논집, 제11권 제2호, 한국국민경제학회, 참조

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적 자유의 체제 역시 더욱 보완될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활동하며 따라서 그것이 사회 전체의 조화를 어렵게 한다. 인간의 폭력성과 부정의는 계급의 구조 속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특정 계급의 사익과 편견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 사회제도와 정책을 자연적 질서에 왜곡되게 만든다.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중상주의나 중농주의처럼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특별한 장려책이나 특정한 제한정책을 주장하는 정치경제학체계는 사회의 진보를 저지한다. 아담스미스는 자연적 자유의 체제가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중상주의 정책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중상주의 정책은 관련 제조업자의 이익을 추구할 뿐 동감의 원리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그리고 독점화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경쟁을 제한하면 항상 사회 이익에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유방임체제는 정부의 개입과 불개입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독점을 가져오는 정부 개입은 철폐해야 하고 자유방임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업조합의 자율규제와 같이 기존의 독과점구조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그의 자연적 체제는 중세적 또는 중상주의적 각종 규제로부터 인간의 활동력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스미스의 이러한 자연적 체제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상의 체제라 할 수 있다. 스미스는 또한 자본주의를 자연적 질서라 보았다. 그는 자연적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인위적으로 얻어져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¹²⁾.

아담스미스의 자연적 질서는 그 개념이 하이에크의 사상체계와도 유사하다.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란 인위적 질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진화의 결과이며, 그 작동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생적 질서는 복잡성의 사회에서 형성되는 질서이며 이 질서 속의 개인은 질서의 구성과 진행방향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개인은 추상적 행위 준칙을 도구로 삼아 다양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¹³⁾. 하이에크에 의하면 자생적 질서는 개인의 자유로움을 보장하나, 인위적 질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불완전하므로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인간 개인들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근간이 되는 자생적 질서를 카탈락시(catallaxy)라고 표현하고, 이를 시장이 창출해낸 특수한 자생질서라 설명하였다. 하이에크는 이 카탈락시라고 하는 자생적 질서가 이기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10) 박창렬(1999), 근대 자연법사상과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학연구, 47집 3호, 한국경제학회, 참조

11) 스미스 경제의 윤리성은 그것이 스토아 사상과 기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기독교 사상에 더욱 많이 의존한다고 주장되어진다. 그는 자연법 뒤에 존재하는 창조주를 보이지 않는 손의 의지적 개입이라 강조한다. 스토아 사상은 인간의 인위적 교육과 절제를 강조하지만 그의 주장은 신본주의자들의 계시적 요소에 더욱 가깝다 볼 수 있다. 황희서(1995), 국제경제연구 제1권 제1호, 국제경제학회, 216~219.,

12) 박순성(1998), 애덤 스미스와 근대적 경제관,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창간호, 7~33, 참조

박세일(1989), 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 조순 외 아담 스미스 연구, 민음사, 29-61. 참조

13) 김균(1996), 하이에크 자유주의론 재검토: 자생적 질서론을 중심으로, 김균외, 자유주의 비판, 서울: 풀빛, 83-130), 권기철, 김규(2002, 13-14)에서 재인용

들의 이기적이든 아니면 매우 이타적이든 대부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목표들을 더욱 진전되도록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시장질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설명하면서 정보전달망으로서의 시장의 개념과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이라는 상호 연관된 개념을 사용한다. 하이에크는 인간이 진화적 과정에 간혀 있는 주체 없는 과정이지만, 주어진 질서 속에서는 자유롭게 목적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과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¹⁴⁾.

3. 정의와 효율성에 관한 스미스의 법적 인식

법적 정의와 효율성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현대 법경제학에서 주요한 현안을 구성한다. 스미스 역시 법적 정의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경제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도 윤리학, 법학, 경제학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윤리 뿐만 아니라 법과 경제의 상호 긴밀성을 표현하고 있다¹⁵⁾. 스미스는 경제학을 입법가의 학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¹⁶⁾.

그는 경제활동과 경제질서를 강제 권력을 지닌 국가의 법과 통치의 핵심적 원리에 의해 적정한 정도로 규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스미스의 정의론은 우선 도덕감정론에서 나타난다. 도덕감정론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도덕 판단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회 심리적 동기의 작용을 다루고 있다. 스미스의 정의론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성립하며 모든 사람이 지닌 분개심과 관찰자의 동감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¹⁷⁾. 그는 도덕감정론 제2부 2편에서 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정의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준수 여부가 맡겨져 있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위반된다면 사람들에게 분개심이 유발되며, 위반한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것이 정의이다. 정의의 덕에 대한 위반은 어느 특정인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가해를 입힌다. 왜냐하면 이는 인정받을 수

14) Hayek(1976),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권기철(2002, 14-15.)에서 재인용

15)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는 신앙과 윤리 그리고 경제를 하나로 보고 있으며 특히 물질세계를 도덕과 신앙의 세계 안에서 통일적으로 이해하려 했다고 설명된다. 그의 주장은 자연과학이 물리학을 바탕으로 물질세계의 질서를 파악하듯이, 도덕철학은 논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서 질서를 모색하며, 인간의 물질적 삶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은 자연과학과 동시에 도덕철학의 학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스미스의 경제이론은, 시장현상의 물리적 법칙 이면에 경제인이 행동동기와 행동행태를 심리적 내지는 도덕적 측면에서 다루는 경제윤리 분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경제인의 활동에서 자신의 이익과 국가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가장 윤리적이라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황의서(1995), 216-219.

16) Smith(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ited by Cambell and Skinner (Glasgow Edition, 1976), Clarendon Press. 428. 김광수(2009), 80에서 재인용.

17) Smith, (175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dited by D.D. Raphael and A. L., Macfie(Glasgow Edition:1976), Clarendon Press, 참조.

없는 동기에서 유발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분개심을 일으킬만한 충분한 이유와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분개심의 자연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의에 의해 입은 침해를 보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폭력에는 공감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고 방어하려 하며 또한 이와 같은 권리를 침해하려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폭력에는 공감하고 받아들이게 된다¹⁸⁾.

그는 국부론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가 의도치 않은 사회적 이익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¹⁹⁾. 그러나 도덕감정론에서는 스미스는 사회적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의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소극적 덕목이며, 행위자의 처벌에 대한 동감에 근거하므로 정의의 구현은 구속력과 강제력을 지녀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정확성과 엄격성을 가져야 하므로 정의의 실행은 국가에 의한 법과 통치의 문제와 연결된다²⁰⁾.

스미스에 의하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들의 정의의 감정에 입각하여 국민의 제반 권리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률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법학강의에서 정의의 법률체계는 개인과 가족, 국가의 세 가지로 나뉘며, 따라서 이를 사법, 가족법, 공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법학강의에서는 그는 이러한 유형의 권리들이 미개사회로부터 문명사회로 성립될 때까지 국가의 실정법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변화되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²¹⁾.

스미스는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인간의 본성을 생활여건 개선 기능과 교환성향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성향은 시장거래를 통하여 경쟁의 촉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자본축적을 이루며 노동 고용의 증대와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 스미스는 이와 같은 인간의 경제적 욕구가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덕목으로서의 정의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 존립의 토대는 물론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²²⁾.

그는 교환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은 경제활

18) Smith(1759), 김광수(2009), 81에서 재인용

19) 스미스의 이기심은 세가지 단어를 가지고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이기심(selfinterest)과 자애(selflove) 그리고 사심(selfishness)이다. 사심은 자기중심적 행동이며 탐욕을 바탕으로 하며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친다. 자애는 스토아 사상측면의 자기보존을 말한다. 자애와 이기심은 유사한 개념으로 기독교적 측면에서 이기심이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된다. 스미스가 이해하는 이기심은 스토아학파가 주장하는 인간의 자기목적의 넘어서는 자연적 성품으로, 이웃사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행위를 가져온다. 인간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 역할이 주어져 있으며 이기심은 인간이 사회의 한 부분임을 알고 주어진 사회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게 만든다. 이기심의 발휘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하고 있다. 황의서(1995), 216-218.

20) 김광수(2009), “애덤 스미스의 법과 경제: 정의와 효율성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학 연구 제 57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09, 81-82.

21) 김광수(2009), 82-84.

22) Negishi(2004), “Adam Smith and Disequilibrium Economic Theory.” Vivienne Brown(ed). Adam Smith Review. Vol. 1, Routledge, 참조

동의 존립기반 자체를 빼앗는다고 보았다. 반대로 교환적 정의 가운데 재산권 보호에 의해서 안전이 보장되면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하였다. 재산권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 사람들의 생산능력은 증대되며 그 분배분은 자본축적을 통한 재투자와 생산성 증대 및 수요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유인한다²³⁾.

또한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보장은 인간의 행위와 제도에 우선하는 자연권으로서 사법에 보장되어야 함을 스미스는 강조하였다. 이처럼 교환적 정의와 확립과 함께 신체적 자유의 보장은 자유경쟁의 제도적 원천이며, 자유경쟁은 자유경쟁의 가격인 자연가격을 결과하여 생산자들 간에 분업과 기술진보를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동태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²⁴⁾.

정의와 효율성간의 긴밀한 이론적 연계성은 법학강의와 국부론에서 동시에 언급되어지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미스가 장자상속법제도를 비판했던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장자상속법은 로마의 붕괴 이후 중세의 봉건제도 하에서 등장했던 제도이다. 그는 이제도가 정의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18세기 서유럽이 이미 질서 있는 법 지배 하에서 사람들의 안전이 상당히 보장되었던 때라, 이 제도는 자연과 이성 및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 상속의 자연법은 토지를 자녀들에게 균등 분할 상속해야 하는 것이라 보았다. 상속제도와 관련된 스미스의 경제적 관점의 요점은 경제적 효율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장자상속법은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 까지 유럽 농업의 억압과 부의 정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법은 토지소유의 집중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였고 토지 독점으로 인해 자유로운 분할 양도와 시장거래가 억제됨으로써 비효율성이 초래되었다²⁵⁾.

스미스는 독점권과 개인적 자유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 사업 등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게는 제한된 기간 동안 일시적인 독점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그는 인정하였다. 스미스는 당시 동인도 회사처럼 원거리 무역의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으나, 동업조합에 대한 독점권이나 특권을 보장한 법제도는 비판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업조합의 특권이 사회의 동감적 정의에 부합되지 못하고, 동업조합법이 자연권인 개인의 자유 및 재산권의 정의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는 시민사회의 경제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스미스는 생각하였다²⁶⁾.

가족법에 관한 주장에서 스미스는 또한 노예제도에 관하여도 비판한다. 노예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정의에 부합될 수 없는 법제도이다. 그는 도덕감정론에서 흑인 노

23) Smith(1776), 335-336.

24) 김광수(2009), 89-90.

25) Smith(1776), 382-423.

26) Smith(1776), 참조

예사냥과 무역 행위는 인류 역사에서 자행된 잔인한 행위로 비판하였다. 노예제도는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과 자연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노예노동의 비효율성으로 사회의 효율에도 악영향을 끼침을 스미스는 지적하였다²⁷⁾.

스미스는 국가가 정의론의 관점에서 국민의 공법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정의론적 관점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면 사회적 효용 실현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법률의 지배에 의한 자유의 확보와 사법(司法)권의 확립은 개인적 자유와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생산활동과 자본축적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이와 같은 역사 사례로 영국을 들고 있다. 영국은 모든 사람이 법률에 의해 노동성과를 향유할 수 있음이 보장되었고 이는 모든 유형의 근로를 최대의 가장 유효하게 장려하는 평등하고 공평한 정의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근대의 영국이 유럽의 후진국에서 빠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처럼 정의의 법률 체계 하에서 자유를 허용하고 평등하게 재산권 집행을 엄격하게 시행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정의와 관련된 공법과 사법상의 권리를 존중하는 체계를 지닌 영국은 중상주의적 규제를 극복하고 유럽에서 가장 빠른 성장의 계기를 만들었다²⁸⁾.

한편 스미스는 영국과 대조적인 사례로 스페인도 들고 있다. 스페인은 유럽의 국가 중 가장 선구적인 해양국가로 출발하였고 16세기까지 공업과 해양에 있어서 단연 선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정체성에 빠지게 되고 네덜란드 영국 등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된다. 스미스는 그 이유로 스페인이 여전히 중상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내농업과 제조업이 침체되고 이에 따른 시장규모가 축소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司法)적 관행도 그 요인이 되었다. 불규칙하고 편파적인 법집행이 국민들의 건전 노동과 상거래를 위축시켰다. 이와 같은 중상주의적인 진부하고 불공정한 법적질서에 더하여 스페인이 그들의 종교적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보수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그들의 퇴행적 경제로의 이행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다른 서유럽의 국가들이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에 기반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의 근대정신을 함양해 나갈 때, 스페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었다. 카톨릭의 전통을 공고히 하기 위해 종교재판소 등을 통한 신교도와 이교도에 대한 탄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수많은 상공업자와 금융업자 그리고 신산업의 종사자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만들었다. 스페인은 자신들이 신대륙에서 유입해온 다량의 귀금속도 사치적 소비와 전비에 낭비함으로써 자본주의 태동을 위한 원시적 자본축적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자유시장

27) Smith(1978) Lecture on Jurisprudence, edited by D.D. Raphael. and P.G. Stein (Glasgow Edition), Clarendon Press, 참조

28) Smith(1776) 610-669.

거래의 확대를 위한 신산업의 종사자들과 자본축적이 바탕이 될 귀금속들은 스페인에서 유럽 다른 나라들로 흘러나감으로써, 스페인이 아닌 다른 지역들에서 가격혁명과 함께 유럽의 자본주의의 태동을 준비하게 되었다²⁹⁾.

4. 개인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

4.1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간섭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스미스의 주장을 이에 대한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1891-1950)의 해석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보기도 한다. 오이켄은 질서자유주의의 창시자로서 그의 주장은 자유방임주의와 국가 개입주의에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지기 때문이다³⁰⁾.

오이켄은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스미스를 자유방임주의자로 해석한 데에서 근거하고 있다. 오이켄은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서 개별이익의 자발적 역량에 대한 추구가 전체 이익을 증진함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개별이익이 자동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스미스의 주장은 비판하고 있다. 오이켄은 국부론에서 각 개인의 경제적 판단 능력이 어떤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근거로 삼고 있다³¹⁾.

개별이익의 추구는 각 경제주체가 독점을 형성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자유방임정책이 상호 담합하고 경쟁을 배제하는 자유도 보장해주게 되고 시장의 자유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오이켄에 의하면 국가 임무는 자유와 기본적인 법 원리만 보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의 자유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 행정기관의 강제 권력과 시민 상호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원리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경제적 권력집단을 해체하거나 그 기능을 제한시켜 경쟁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오이켄은 자유방임주의가 사적독점을 막기 위한 국가의 개입 필요성에 소홀하였다 주장한다.

그러나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일반 이익으로 호도하는 특정 세력의 폐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한 나라의 부의 원천과 그것이 분배되는 방식의 지식을 왜곡하고 잘못된 정책을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도덕감정론에서도

29) Ibid.

30) 발터 오이켄 (1996), 경제정책의 원리, (안병직, 황신준 역), 민음사, 참조

31) 임일섭(2016), 개인 이익과 국가 개입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인식: 오이켄의 애덤 스미스 해석 비판, 질서경제저널 (19)4 25-26. 한국질서경제학회.

한 사회에서 특정 세력들의 이익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³²⁾.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 제1편에서 지주, 노동자, 자본가 이들 세 계급의 개별 이익과 전체 사회이익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먼저 지주의 이해는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생산력의 향상과 유용 노동량의 증가는 토지 생산물을 증가와 토지의 실질 지대를 높이게 된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임금을 오르게 하고 사회의 실질적 부가 낮아지면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윤 생활자인 자본가들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발전과 충돌하게 된다. 이윤율은 부유함이 떨어지는 나라일수록 높게 되며 상공업자들의 이익은 종종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상인과 제조업자들은 경쟁의 제한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많이 끌어들이려 하며, 이들의 이와 같은 자기 이익의 추구는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³³⁾.

스미스는 이윤 생활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을 형성하는 법률을 관철시키려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법과정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주와 노동자들에 비해 이윤 생활자들은 그들의 이익과 전체 사회 이익 사이의 객관적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 우월성을 통해 전체 사회의 이익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이윤 생활자인 상공업자들은 도시의 주민들로서 단결하여 조직을 결성하기 쉽고 따라서 동업조합과 같이 그들 특유의 배타성과 집단내의 연결의 긴밀성 등의 이점은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음모나 가격인상의 책략을 이끌어내기에 용이하게 만든다³⁴⁾.

이윤 생활자들이 사회 전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들을 관철시킨 사례로 동업조합법을 들 수 있다.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쟁을 억제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제품들이 농촌 제품들에 비해 상승함으로써 그 부담을 지주, 농업 경영자, 농업노동자들에게 귀속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중상주의와의 관련성에서도 발견되어진다. 동업조합법등을 통하여 공급 독점의 배타적 특권을 확보한 도시 상인이나 제조업자들은 해외에서도 동일한 특권을 추구하게 된다. 그들이 누리는 수출장려금이나 세금 환불 등과 같은 특혜는 국내 소비자에게는 세금 부담과 상품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적 손해를 안게 된다. 공급 독점의 기반은 수요 독점의 추구로 이어지게 된다. 영국의 경우 아마포 제조업자들은 아마포의 원료인 마사의 국내 독점은 물론 외국산 마사의 수입을 장려하여 국내의 방적공들을 더욱 압박하였고, 모직물 제조업자들은 의회를 통해 외국 모직물 수입 금지의 관철과 양모 생산자

32) 임일섭(2016), 26.

33) Muller(1995), Adam Smith in his time and outs-designing the decent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77.

34) 임일섭(2016), 27-29.

들에 대한 수요 독점을 보장받게 된다. 그들의 독점 추구는 식민지 무역에서도 잘 나타난다. 영국은 자국의 생산물과 경쟁이 되는 제강, 제철 산업 및 모직물 산업의 육성을 금지시켰고 식민지 제국의 설립과 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쟁을 치렀다. 이와 같은 일들은 식민지 무역의 공급과 수요를 독점하여 영국 국민 전체의 제조업자들에게 의존하는 고객을 만들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³⁵⁾.

스미스는 이윤업자 또는 도시의 상공업자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독점 추구 성향이 다른 집단에게 확산될 수 있음도 경고하였다. 도시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이 외국제품의 수입 억제로 국내시장에서 독점을 보장받으면, 농업관련자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 자국 시장에서 농산물 공급에 특권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국시장의 독점이 무역 차액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자국의 이익이라는 “무역차액설”을 지지하며, 이를 국민적 상식으로 자리잡게 하며 국가의 정책의 원리를 독점으로 정착시키려 한다. 스미스는 이처럼 독점이 관철되고 추가적인 사적 이익들이 추가되면 이들이 입법부를 위협하고 자유무역을 방해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고 보지 않았다. 경제 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시장경쟁의 촉진과 함께 전체 사회의 유익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특정 집단의 자기 이익 추구는 여러 독점적 정책들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독점화 경향은 시장경제의 내재적 특성들, 즉 경제성장이나 계급 분화에 따른 사고 능력과 행동 방향의 차이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예컨대 분업의 증가와 함께,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들로의 분화가 촉진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한다는 것이다³⁶⁾.

한편 스미스가 국가가 비호하는 독점에 대한 비판은 하였으나 민간이 주도하는 독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어진다. 이는 스미스가 국부론을 집필하던 시대보다 1세기 이전에 이미 석탄업자들의 생산량과 가격에 대한 담합의 사례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여기에 더불어 국부론에서 제시한 주권자의 의무 - 국방, 사법, 공공제도-에 민간 차원의 독과점을 막는 국가의 임무가 언급되지 않았던 점도 스미스가 자유방임적 국가관의 특징을 가졌다는 주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부론 전체를 찾아보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들을 매우 넓게 보는 스미스의 주장들이 발견되어진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품질 인정이나 이자율 규제, 국방 목적의 관세, 그리고 국가가 상업적 프로젝트에 참여에 찬성 및 사치재에 대한 누진세의 부과를 역설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견하였다. 따라서 스미스는 최소국가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국가개입을 적극적으로 지

35) 임일섭(2016), 29-30.

36) Brown (1988), Adam Smith's Economics: its place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ought, New York, Cromm Helm, 99.

지했다고 볼 수 있다. 스미스는 국가의 역할을 넓게 규정하였고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어떤 주제를 간략하게 다루거나 전혀 다루지 않는 점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개입에 대해 그가 반대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민간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이미 영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었고, 따라서 이는 이미 국가개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 논의 사항이 아니었다 할 수 있다³⁷⁾.

4.2 정부의 경제정책과 자연법적 균형

스미스는 자연적 자유의 체제에 대하여 주창하고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우선이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될 때 이를 자연적 자유의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와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체제 하에서 인간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욕구가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 및 사회적 환경도 진보시킨다. 이는 국부론에서 많이 인용되는 내용들, 즉 공익에 관심 없이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보다도 물질적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체제에 대한 강조로, 국부론 출간 이후 100년이 지난 후에도 영국의 정치인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국가의 불개입을 스미스의 중요한 정부관으로 인식하였다. 스미스의 사상에 따르면 사회의 내부에 상호작용하는 제력의 효과만으로도 사회 확대 및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 또는 정치의 역할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스미스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소위 비정치적 모형에 근거한다고 표현된다³⁸⁾.

그러나 상기한 비정치적 사회모형이 최근에 많은 스미스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정되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부론에서 스미스가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자유방임론자가 아니고 오히려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20세기 초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서 제기되어졌다. 스미스가 국방, 사법, 공공사업과 공공시설 등 세 가지만 자연적 자유체제하에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간주했다는 것이 통상적 견해였다. 그러나 스미스가 자유방임의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방임정책의 예외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했다는 주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국부론에 제시된 특정한 정책 처방은 그의 시대에 적용된 것이며, 오늘날에는 그가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는 당시 자유방임에 의해서 해결이 불가능하였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을 수긍하였다 주장된다³⁹⁾.

37) 임일섭(2016), 32-35.

38) 김광수(1994), 아담스미스와 정부의 역할:제조명, 한국경제 제21-1호,성균관대학교 한국산업연구소, 383~384.

아담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은 국민과 국가의 부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경제세계에 대한 분석, 즉 국부론에 있는 가격론이나 분배론 등은 정책적 목적이 물질적 후생이나 경제성장의 촉진에 있음이 발견되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스미스가 자유시장 경제의 선구적 분석자라는 특징 이외에도 경제성장 정책을 위한 도구로서의 경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평가를 더할 수 있다. 그의 경제 분석에서는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는 자본주의의 선행 체계로서 분석되고 있으나, 두 선행 체계가 경제 법칙을 정확하지 못하게 파악하였고 그 결과 의도한 정책과 반대의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되어진다.

국부론에서 스미스는 자본축적과 분업을 통한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연적 정의와 자유의 유지, 그리고 선호와 제약 없는 경쟁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인위적 규제가 자본의 투자우선순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대 유럽의 제국가들의 인위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예로 제시하였다⁴⁰⁾.

스미스는 자연법학이 “제국(諸國)의 제법(諸法)의 근본이어야 하는 일반이론”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법학은 입법의 이론적 모형이며 경제정책은 입법을 통하여 집행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제문제가 자연법학의 틀 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법학이 국가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을 세우는 이론이라 한다면 경제학은 정치학과 정책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법학은 그 내용이 정부의 활동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활동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 즉 정의와 사회적 효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는 사회, 교육, 군사활동 등과 함께 사회적 효용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는 공공정책의 우선순위가 국방과 사법 활동이 경제성장 보다 우위에 있음을 주장한다. 국방이 무너질 경우 개인의 소유권이나 사법 활동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정의를 사회라는 건축물을 지탱하는 대지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사법 활동이 경제적 부와 후생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의에 대한 그의 입장은 그의 「도덕감정론」의 윤리적 관점을 기초로 한 국부론에서 나타나고 있다⁴¹⁾.

스미스는 정의와 사회적 효용의 고려 하에서 당시의 경제법의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자유의 보장을 희생하더라도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함이라 하겠다. 그는 은행권 발행에서 자연적 자유의 규제와 함께 소방 벽의 강제적 설치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의와 사회적 효용의 원리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연적 규제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공공사업의 추진과 공공시설

39) Winch(1983)“Science and the Legislator: Adam Smith and After”, Economic Journal, Vol.93, 501-20,

40) Smith(1776) II,IV 참조

41) 김광수(1994), 390-392

의 수립 그리고 일시적 독점 허용, 특허 허용 등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고 고차적인 사회정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개인적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⁴²⁾.

이와 같은 스미스의 주장과 태도에서 볼 때, 자연적 자유가 정부의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라 할 수 없으며, 개인의 부와 경제적 후생도 정부의 역할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얘기되어질 수 있다. 국부론에서 나타나는 스미스의 주장, 즉 경제적 자유주의는 주요한 논지중이 하나이다. 그러나 그는 개인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는 기능을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간주하였다⁴³⁾.

스미스는 「법학강의」에서 발전된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임을 내다보았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스미스의 주장이 단순히 자유방임주의라고 결론지었던 과거의 수많은 전통 속에서 이에 대한 반론들이 상당히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특징에서 항상 대조적 입장으로 분류했던 스미스 대 케인즈의 태도는 오히려 공통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되어질 수 있다⁴⁴⁾.

5.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스미스의 국부론은 일반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정치경제학의 최고의 역작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도덕감정론의 인간적 및 사회적 도덕성의 기초 위에서, 국부론을 통하여 새롭게 태동되는 근대 자본주의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평가되어진다. 스미스는 자본주의제도의 운동법칙과 각 변수 간에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제 분석방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으며, 경제학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그는 요소비용을 임금, 이윤, 이자 등으로 분해하였으며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동시에 다루어 경제를 장기적 관점과 동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스미스는 또한 윤리와 법과 경제의 상호 긴밀성의 관점에서 경제 활동과 경제 질서를 설명하였다. 그는 도덕감정론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정당한 강제력과 함께 엄

42) Smith(1976), II, V 참조.

43)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는 스미스가 정부에 의한 유치산업 육성을 지지하였고 유치산업 성숙 후 정부의 협조에 순응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스미스는 동일한 재화에 대한 국내과세를 중화시키기 위해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였고 국방을 위해 어떤 관세를 지지해야 한다는 문제에 굴복하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스미스가 최소임금을 지지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는 또한 시장경제의 효율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박애주의에 입각하여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주장하였으며 영국 빈곤계층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직업을 제공하는 것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그의 요구사항들은 계약 강제, 정의실현 시스템 제공, 특허와 복제권 인정, 인프라와 같은 공공재 제공과 국방의 책임 및 은행의 규제 등이었다. 그는 유치산업 독점화 지지와 함께 사회에 일반적 이득을 주는 공공교육과 종교기관을 지지하였고, 정부가 군주와 치안장관의 권위를 대중과 다르게 세워주는 문제도 거론하였다. Martin, Christopher. "Adam Smith and Liberal Economics: Reading the Minimum Wage Debate of 1795 - 96," Econ Journal Watch 8(2): 110 - 125, May 2011, 참조

44) Skinner, "Adam Smith: Liberalism and Education", Glasgow University Discussion papers in Economics, 9002 참조.

격성을 가진 법과 통치가 국가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강조한 이기심과 자애심 등이 인간사회의 경험적 산물임을 지적하고, 아울러 이러한 도덕 감정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여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와 전체의 이익 즉 공동선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그의 지적은 그 시대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안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미스는 우리들에게 도덕적 교육을 제공해주는 매개체로서 시장도 포함시키고 있다. 시장은 일상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소박한 제도인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시장을 통하여 자신들의 일상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아도취 등을 줄이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눈을 맞추어 간다고 그는 주장한다. 스미스는 인간이 항상 열렬한 이타주의거나 애국적이라고 보지도 않았다. 그러한 생각들은 이상주의적인 사상가들이 그들의 희망사항을 이념적으로 고착화시킨 것이라 그는 보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부론에 나타난 스미스의 사상은 지금까지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신흥자본가 계급에게 보다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지주들에게 훨씬 친화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이 연구자들의 최근의 논의에서 부각되고 있다. 그는 또한 소비자 전체의 이익이 실현되는 경제발전을 강조하여 이전의 중상주의가 특수계층, 생산자 중심의 주장이었던 것과 대비를 이룬다. 또한 국부론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을 통한 제국가들의 국부의 증대 및 평화를 달성하는 세계 평화주의의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중상주의가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함을 지적하고 절대우위에 특화하여 수출할 것을 주장하였다.

흔히 아담스미스에 대해 시장의 경쟁우위자의 이익만을 당연시하는 냉정한 경제적 이기주의 옹호자로만 인식되어져 온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확실히 교정되어야 하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Edwin Cannan의 주장을 통해 설명했듯이, 그가 상인과 제조업자들이 가격인상과 임금 인하를 위한 농간의 위협성에 대해 경고한 점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스미스는 시장의 효율적 작동도 사실상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더욱이 그가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점에서, 경제활동에서의 생산적 노동가치의 우선성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배려를 역설하였다 할 수 있다. 지주에 대한 인식에서도 스미스는 중농주의 영향으로 그들에 대한 인식이 상인과 제조업자보다는 우호적이었을 것으로 보며, 그 경제활동의 성격상 지주가 시장에 끼치는 해악이 상인과 제조업자들보다 훨씬 덜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스미스가 중상주의적인 국가독점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민간독점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한 점이 없다는 점이 비판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업조합법 등이 개인의 자유 및 재산권의 정의를 위반한다는 그의 주장

속에서, 또한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불순한 도모를 그가 비판한 점과, 당시에 이미 영국 정부에 의한 민간독점에 대한 규제 실시로 인해 그 논의가 시급성이 낮았던 점에서 등,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그가 민간독점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아담스미스가 개인의 도덕성과 판단력 및 행위들의 우월성을 강조하였고 철학적이거나,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그가 자유방임주의와 최소정부를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그를 현대적 자유방임주의자의 원류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최근의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아담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라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정부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고 하는 주장들이 아담스미스의 새로운 인식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국민과 국가의 부를 증대시킴이 아담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바, 그는 자유방임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한 사회적 문제들에 적극적 정부개입과 함께 개인의 희생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설명한 일반 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훌륭한 역량도 더욱 깊이 고찰되어질 필요도 있지만, 아담스미스가 지금까지 철저한 자유시장과 제한된 정부주의자로만 알려진 사실에 대한 반론 제기도 새롭게 조명할 만한 부분으로 부각되어질 수 있겠다.

이에 더하여 아담스미스가 자본주의에 대한 옹호자일 뿐이라는 이제까지의 보편적 인식도 달리 해석해 볼 수가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국부론을 비롯한 그의 저술 속에서는 그가 자본주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매우 혐오적인 생각도 아울러 갖고 있음이 발견되어진다. 그는 특히 그의 시대에 나타난 만연된 사회적 그리고 개인들의 타락에 비판적이었다. 칼 막스의 노동가치설 역시 아담스미스의 생산력제론을 기초로 하고 있음도 잘 알려진 바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스미스의 사상은 자본주의의 고전학파적 사고의 원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태동했던 사회주의적 사조와 그리고 이후의 막스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스미스는 개인의 인간적 가치와 경제제력이 충분히 보장되고 신장되는 경제사회의 실현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의 달성은 합리적 사회의 틀 속에서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도덕성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 경제구성원들의 조화로운 분배 등을 경제사회의 이상적인 상태로 보고 있다. 이는 또한 현대 자본주의에도 많은 시사점을 여전히 던져주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와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과 함께, 노동자와 농민들에 대한 옹호, 그리고 때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시장의 건전한 경쟁 유지와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기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스미스의 주장들은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등 글로벌 경제 위기가 빈발하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상황에서,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을 탈출해야 하는 우리 사회와 국가에 하나의 해법으로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개인과 기업 정부 모두가 글로벌 메가 경쟁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시스템과 정책 역시 경쟁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는 각 주체들이 경제활동 능력만이 아니고 이들이 전체적 틀 속에서 효율성과 형평, 조화를 이루어 총체적 역량이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크게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담스미스의 경제학 체계는 새로운 시대의 사회과학을 모색하는데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지혜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사상과 철학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권기철, 김규(2002), 아담스미스의 자본주의론과 자본주의 정당화, 경제학논집,11(2),1-30.
- 김광수(1994),아담스미스와 정부의 역할:재조명,한국경제 21(1),383-384.
- 김광수(2009), “애덤 스미스의 법과 경제:정의와 효율성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학 연구 57(1) , 77-107.
- 김남일(2008), 아담 스미스의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국부론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3-5.
- 김영수(1982), 아담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일고찰, 경상대학논집,10,경북대학교 경상대학, 1-12.
- 김용재(2009), 아담 스미스의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국부론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단국대학원 경영대학원
- 박세일(1989), 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 조순 외 아담 스미스 연구, 서울:민음사, 29-61.
- 박세일·민경국역(1996) 도덕감정론,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Oxford, 1976. 서울:비봉출판사
- 박순성(1998), 애덤 스미스와 근대적 경제관,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창간호,7-33.
- 박창렬(1999), 근대 자연법사상과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학연구,47(3), 355-381.
- 발터 오이켄 (1996), 경제정책의 원리, (안병직, 황신준 역), 서울:민음사.
- 임일섭(2016), 개인 이익과 국가 개입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인식: 오이켄의 애덤 스미스 해석 비판, 질서경제저널 (19)4, 23-42.
- 장오현(2013/8), 국부론이 던지는 메시지, 제도와 경제 7(2), 5-12.
- 황수익(1994),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반, 사회과학과 정책연구,16(3)
- 황의서(1995), 아담스미스의 경제윤리, 국제경제연구 1(1), 215-239.
- Brown, M. (1988), *Adam Smith's Economics: its place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ought*, New York:Cromm Helm,
- Christopher Martin,(May 2011) "Adam Smith and Liberal Economics: Reading the Minimum Wage Debate of 1795 - 96," Econ Journal Watch 8(2): 110 - 125.

- Hayek, Friedrich(1976), Law, legislation and Libetty, vol.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uller, J.(1995), Adam Smith in his time and outs-designing the decent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egishi, T.(2004), “Adam Smith and Disequilibrium Economic Theory.”Vivienne Brown(ed). Adam Smith Review. 1, Routledge.
- Skinner,A.S.(1990) “Adam Smith: Liberalism and Education”, Glasgow University Discussion papers in Economics, 9002
- Skinner, A.S.(1996). A System of Social Science, Clarendon Press (2nd ed.),
- Smith, A.(175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dited by D.D. Raphael and A. L.,Macfie(Glasgow Edition:1976), Carendon Press.
- Smith, A.(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ited by Cambell and Skinner (Glasgow Edition, 1976), Clarendon Press.
- Smith, Adam.(1937), Wealth of Nations, ed., by Edwin Cannan, Modern Library,
- Smith A.(1978) Lecture on Jurisprudence, edited by D.D. Raphael. and P.G. Stein (Glasgow Edition), Clarendon Press,
- Winch,D.(1983), “Science and the Legislater: Adam Smith and After”, Economic Journal, 93.